

LG화학, 사회봉사단 본격 출범

LG화학이 본사 임직원 240여명으로 구성된 사회봉사단을 본격적으로 출범시켰다.

봉사단의 단장은 CEO인 김반석 부회장이 맡아 사회공헌과 관련한 전사 차원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.

봉사단은 7월 19-22일 영등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<희망 가득한 교실 만들기>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.

1차로 디자이너 15명 등 70여명이 참석한 활동에서 봉사단은 인테리어 관련 임직원들의 업무 역량을 적극 활용해 친환경 바닥재 교체, 책상·의자 교체, 놀이방 벽화 그리기 등 복지관의 아동·청소년 시설에 대한 실내환경을 개선하는데 집중했다.

이에 따라 새롭게 단장한 영등포 종합사회복지관의 5개 공부방은 지역 청소년들의 쉼터로 활용될 예정이다.

LG화학 CHO(최고인사책임자) 육근열 부사장은 “교육, 환경개선 등 임직원들의 내부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차별화 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발굴해 지속 추진함으로써 Citizen Partner(기업시민 파트너)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LG화학은 본사 사회봉사단 외에도 7개 지방사업장에서 5000여명의 임직원이 독거노인 보살피기, 결식아동 돕기, 지역 환경보호 활동 등 자발적인 형태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.

<화학저널 2008/07/23>